P.I.R.A.M 국어
2024학년도 수능
해설지

공통과목

〈독서+문학〉

피램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정보는 카테고리화된다.〉

2024.11 [1~3] 독서론 '독서에서의 초인지 활용' ☆

1문단

①**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②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③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① #정의 제시

'독서'를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라는 정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의식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초반부에서 제시되는 중요 개념의 정의는 확실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②~③ #화제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단순한 '인지'를 '초'월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인지하는 '초인지'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과 '조정'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라는 개념의 정의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검'과 '조정'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이 쉽든 어렵든 '생각의 틀'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2문단

[A] ①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②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③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④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⑤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⑥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⑦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 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② #카테고리 인식 #재진술 #화제의 흐름

두 가지 카테고리 중 '점검' 카테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효과적이거나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해요. 이때 바로 '초인지'가 사용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화제' 중심으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③~⑦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초인지'를 활용해 자신의 독서 전략을 '점검'한 결과,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 즉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생각들을 분류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죠?

나아가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즉 '초인지'가 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읽기를 하고 있거나 이해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독서가 중단되지는 않아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우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초인지'를 깨워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초인지'를 통한 독서 과정 '점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초인지'라는 화제와 엮어 납득하는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점검' 카테고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것이 '초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여야 해요.

3문단

①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②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③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④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⑤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①~④ #카테고리 인식 #재진술

이번에는 '조정' 카테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인지'를 활용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전략에는 무

엇이 있고, 각 전략의 특징은 어떠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정보량이 많지만, 단순히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당연한 말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화제의 흐름

이렇게 전략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독서'라는 인지 행위였습니다. 화제의 흐름 속으로 정보를 모아 주면서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점검' 카테고리를 지나 '조정' 카테고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에 맞춰 정보를 처리하면 독해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2%	1%	1%	92%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⑤

①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하지.
해설	애초에 '독서'의 정의가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인지 행위였습니다. 이에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서의 목표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죠?

②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한 거 아냐?
해설	독서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특징 · 사용 절차 · 조건 등의 여러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에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③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네.
해설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초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 행위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였습니다.

④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알아야 조정하지.
해설	독서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서,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역시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⑤ <u>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u>.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초인지를 활용해서 점검 · 조정 되풀이해야지.
해설	이 지문의 화제를 무시하는 선지네요.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 선택한 독서 전략에 대해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 이 지문에서 소개한 이상적인 '독서' 그 자체였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2%	87%	9%	1%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A]는 '점검'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완벽하게 납득했었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명시적 근거	2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렇게 해서 초인지를 깨웠어야 했지.
해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초인지'를 깨우는 것이 독서 전략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확실하게 납득했었죠?

②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점검을 보류할 게 아니라 초인지를 깨워야지.

해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선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며 '초인지'를 깨우는 식으로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지문의 내용이었죠?

③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번째 카테고리였지.
해설	'점검' 카테고리 속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로 재진술한 모습이네요.

④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해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는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지, 독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지문에서 '점검'이라는 말이 곧 '문제 해결'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해요.

⑤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경우에도 초인지가 중요하다니까.
해설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인지'를 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5%	1%	6%	6%	2%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조정' 카테고리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 제시된 정보들을 납득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친절하게 ㉠~㉤으로 밑줄을 해 주었으니 이를 읽자마자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독서 전략을 '조정'하여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물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로운 전략 쓰는 거 아냐?
해설	이 학생은 '처음에는' 모르는 용어를 무시하고 읽었는데, 해당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것을 보고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네요.

○ 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② ⓑ: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로운 전략을 찾아보고 있네.
해설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는 전략도 실패하자, 이 학생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 내용 그 자체죠?

○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③ ⓒ: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검색을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전략의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 ⓓ
○ 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④ ⓓ :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앞부분 먼저 읽고, 다른 책 찾아보고, 마지막에 검색을 하겠다는 식으로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⑤ ⓔ :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다음 최적의 전략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 내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독서론 지문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야 아무런 생각없이 답만 고르고 가셔도 되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배운 내용을 최대한 적용해본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제 중심 독해', '카테고리 나누기' 등을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이었죠?

생각의 전개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2024.11 [4~7] 사회(사회학)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해결'

☆☆☆

1문단

①**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②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③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⑤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①~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경마식 보도'를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는 '경마' 중계를 하는 것처럼 지지율 변화 ·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형태라고 해요. 선거 기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보도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율 및 득표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니,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경마식 보도'는 이러한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그리고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방송사의 필요에도 부응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④~⑤ #재진술 #화제 제시

'경마식 보도'는 흥미 있는 뉴스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보도이기 때문에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보도'라는 '경마식 보도'의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마식 보도'의 단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역시 최대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마식 보도'의 특징은 지지율 · 득표율처럼 '흥미 있는 뉴스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선거의 주요 의제 같은 것보다는 그저 지지율과 득표율에 대한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지지율 · 예상 득표율이 낮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선거의 추이가 지지율 · 예상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가 심해지면 '선거의 공정성'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경마식 보도'라는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납득하시고,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화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하이라이트 문장'은 핵심 개념인 '경마식 보도'의 정의를 소개하는 1번 문장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을 납득하여 지문을 더 깊게 이해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장을 '하이라이트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독서 파트의 점수를 결정할 것이니, 확실하게 '납득'하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2문단

①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②「**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③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④「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⑤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⑥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① #화제 제시

화제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해한 바와 같이, '경마식 보도'는 지나친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기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 조치들이 곧 화제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먼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의 보도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고 합니다. 앞 문단에서 '경마식 보도'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는데, 선거일 직전에는 '경마식 보도'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선거일 6일 전'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의 재진술임을 파악하면서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선거일 직전에 '경마식 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마식 보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지지율 · 예상 득표율이 궁금한 국민과 그것을 보도하고 싶은 언론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조치니까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에 임박한 '경마식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은, 선거 의제가 아닌 지지율 · 예상 득표율에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경마식 보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즉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일에 임박한 '경마식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④~⑥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왜곡 보도 및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결국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경마식 보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인데, 만약 왜곡 보도를 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더 크게 저해될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언론 단체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서도 표본 오차를 감안한 정확한 보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 · 우열'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합'이라는 표현은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포인트와 엮어 생각하면 '서열 · 우열 드러냄=불공정', '경합=공정'이라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경합'이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언론 단체 내부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 보였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화제 중심으로 읽으면 정보량을 크게 줄인 채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납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 ①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이 지문의 진짜 화제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인 '선거의 공정성 저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이 포인트에 맞춰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늘 강조하지만,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문단

> ①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②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③「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 즉 '선거의 공정성 저해'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선거 보도 관련 규정'이라는 카테고리 외에도, '선거 방송 토론회'라는 카테고리가 '선거의 공정성 저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화제에 맞춰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선거 방송 토론회'는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비교적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가 한정된다고 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초청 대상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조건들을 살피면, 어느 정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만 초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죠? 물론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 개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조금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정책 및 자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분명히 '선거 방송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되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 ①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선거 방송 토론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역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화제와 연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4문단

> ①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②**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③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④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①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모습이에요. 어떤 논리일까요?

② #주장 제시 #재진술

먼저 '다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를 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다수 의견'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겠죠? 이에 따르면,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

무 많으면 심층적 토론도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 있는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네요.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야 합니다. '다수 의견'은 '효율성 · 합리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 규정이 용인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다음은 '소수 의견'입니다. 이들은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일부 후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 기회인 '선거 방송 토론회'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의 정책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없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 · 차별적 침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수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자의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한 차별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네요.

이 지문의 화제를 고려할 때, 결국 '소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마지막까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화제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화제 중심으로 읽을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	3%	6%	87%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 경마식 보도

- 이 지문의 핵심 정보인 '경마식 보도'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지지율 · 예상 득표율 같은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흥미를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단점도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지.
해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합니다. 시청자의 요구와 방송사의 필요에 모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었죠?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는 것이었지.
해설	'경마식 보도'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와 새로운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의 필요 모두에 부응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납득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게 경마식 보도의 정의인데?
해설	'경마식 보도'는 지지율 변화 및 득표율 예측 등,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보도를 의미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를 묻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걸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해설	'경마식 보도'는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한 나머지,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완벽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장점이었지.
해설	'경마식 보도'의 장점 그 자체입니다. 미리 생각한 내용이기도 하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9%	37%	20%	19%

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한 것이지.
해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가 금지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선거일 직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지문에서 언급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곧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와 같은 말임을 생각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능하긴 했지.
해설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3문단으로 돌아가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 없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어느 정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납득하며 읽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왜 충돌해.
해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직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이유를 들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 맥락을 확실하게 납득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다룬 적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거일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모두를 침해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납득'하는 태도가 중요했네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가 아닙니다!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러면 규정 위반 아니네.
해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언제든 해도 상관없지만 선거일 직전까지는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선거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이후 보도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죠?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수 의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해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방송 토론회'라는 선거 운동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소수 의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특정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납득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53%	9%	17%	14%

6.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②

㉡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
ⓐ 다수 의견 / ⓑ 소수 의견

-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지에서 '강화 · 약화'라는 표현이 쓰여 LEET 및 PSAT 등 성인 대상 언어 시험 형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늘 나오던 비판 문제의 변형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해주시면 됩니다.

비판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각 입장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효율성 · 합리성'의 차원에서 ㉡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본 '다수 의견'과 '선거의 공정성'의 차원에서 ㉡이 잘못되었다고 본 '소수 의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결해봅시다.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 제한이나 후보자 수의 한계가 다수 의견의 핵심 논거였지.
해설	'다수 의견'은 지나치게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심층적 토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가 심층적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다수 의견'의 입장은 약화되겠죠.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가 궁금할 텐데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 의견의 입장은 약화되겠다.
해설	선거 기간 좋은 활약을 펼친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경우, 많은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의 정책 및 자질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는 이 후보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해당 후보가 ㉡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 방송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다수 의견'의 입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것인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버린 상황이니까요. 결국 '다수 의견'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수 의견에서는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했지.
해설	'소수 의견'에서는 ㉡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의 입장은 약화되겠네요.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차별적으로 인식한 거니까, 소수 의견의 입장 그 자체네.
해설	'소수 의견'에서는 ㉡이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후보자가 이 토론회가 아닌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좋은 활약을 했으나 해당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이는 해당 후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소수 의견'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기에, '소수 의견'의 입장을 강화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지.
해설	'소수 의견'에서는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선지의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42%	10%	27%	8%

7.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공직선거법」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 ㉮~㉰는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했고, ㉯와 ㉰에서는 왜곡 보도를 금지함과 동시에 오차 범위 내에서의 '서열 · 우열' 표현을 금지했죠? 다만 ㉰에서는 '경합'이라는 표현은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후보	42%	38%	39%
	B후보	32%	37%	38%
	C후보	18%	17%	17%

- 1차 조사 · 2차 조사 결과의 경우 선거일 6일 전까지는 보도가 가능하겠지만, 3차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아예 보도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나아가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의 경우에는 A 후보가 B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이죠? ㉯와 ㉰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서열 · 우열'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이 정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차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밖이니까 화끈하게 보도해도 되지.
해설	1차 조사 결과, A 후보가 B 후보에게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왜곡 보도'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해도 ㉯와 ㉰를 모두 위배하지 않습니다.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차 조사 결과 보도할 때는 서열 · 우열 표현하면 안 되지.
해설	2차 조사 결과, A 후보가 B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와 ㉰를 위배하지 않으려면, 이런 경우 '서열 · 우열'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조금 앞서고'라는 '우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도 위배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와 ㉰의 내용이 '법적인 제한 / 언론 단체 자체의 제한'이라는 카테고리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임을 생각했다면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물론, C 후보의 경우 나머지 두 후보에게 오차 범위 이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C 후보가 3위라는 식으로 '서열' 표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 문장,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차 조사 결과는 애초에 보도하면 안 되지.
해설	3차 조사는 ㉮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시기에 시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의 내용처럼 보도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서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차 조사 결과는 서열 · 우열 표현 못 쓰지.
해설	1차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하기만 하면 '서열 · 우열' 표현을 써도 되지만, 2차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서열 · 우열'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2번 문장,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합 정도는 ㉰에서도 봐 준다고 했고, 3차 조사 결과는 아예 보도하면 안 되지.
해설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후보는 B 후보에게 1%P 앞서 있습니다. 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을 거예요. ㉰에서는 '경합'이라는 표현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요.

	한편 3차 조사 결과는 ㉮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시기에 시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보도한다면 이는 ㉮에 위배되는 것이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아무 생각없이 읽으면 정보량이 꽤 많게 느껴졌겠지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화제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읽으면 대부분의 정보가 납득 가능한 형태의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지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곧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해설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생각하며 가볍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 워크북 〈결국, 다 같은 말이다.〉

2024.11 [8~11] 기술 '정확한 데이터 처리' ☆☆☆

1문단

①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②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①~② #화제 제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데이터에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고 해요.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 지문은 '결측치'와 '이상치'를 보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겠네요. 이러한 기술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정의부터 체크할 준비를 해봅시다.

2문단

①**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②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③**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④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⑤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⑥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①~②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결측치'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측'정된 데이터 값의 일부가 '결'손되어 있다는 식으로 그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의 정확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대체'네요.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하네요.

③~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평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중앙값'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여도 순위를 매겨 '중앙'에 위치한 '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여서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이 없더라도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찾는 식으로 '중앙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값'이 바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것이죠?

한편 '최빈값'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최'고로 '빈'도가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역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재진술

이처럼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데,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연속된 수치인 경우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찾기가 어렵고, '평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니까요. 나아가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경우, '중앙값'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직업과 같이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 '평균' 및 '중앙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니, '최빈값'을 '결측치'를 '대체'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런 정보를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체크한 '결측치',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앞에서 인식한 각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납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선지 판단 속도를 높여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문단

①**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②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③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④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다음은 '이상치'입니다.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다른 값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측정 오류 등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②~③ #사례-원리 연결

그런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문장에 제시된 프로 선수들의 연봉 사례처럼, 정상적인 데이터여도 어떤 값 자체가 튀는 값이라면 당연히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상치'는 그저 조금 '이상'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④ #재진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역시 당연한 말입니다.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면 '이상치' 쪽으로 치우친 값이 나와 그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이상치'와 무관하게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그 값이 해당 데이터를 더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치'와 '중앙값'과 같은 개념의 정의를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니, 가볍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앞에서 인식한 '이상치', '중앙값'의 정의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납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문이 짧을수록, 제시된 문장들을 최대한 납득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4문단

> ①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②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④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⑤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이상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각해봅시다.

②~⑤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평면상에 있는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이 데이터의 핵심이기에, 어떤 직선 주위에 점들이 모여 있다면 해당 직선은 점들의 '위치'라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즉, 직선 L 근처에 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존재하는 몇 개의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들이 바로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상치'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서는 점들이 L 근처에 모여 있어야 정상인데, 그 근처에 있지 않고 튀는 위치에 있는 것이니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선 L을 이용한 일종의 사례-원리 연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납득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 ⑤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다는 직선 L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상치'의 정의를 바탕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제시된 개념의 정의를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시되고 있어요.

5문단

> ①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②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③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④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⑤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⑥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⑦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⑧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① #재진술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상치'를 포함하는 경우, 직선 L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②~③ #정의 제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A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은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L은 정상치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은 점들이 많은 경우 직선 L의 후보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④~⑥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때 정상치 집합으로 분류한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은 경우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버린다고 합니다. '문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상 앞에서 했던 말의 재진술이니, 이를 통해 'A 기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인 경우 해당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한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정상치 집합에 포함되는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치'가 포함된 직선들은 직선 L의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A 기법은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도 직선 L을 찾는 데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네요.

⑦~⑧ #재진술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직선이 직선 L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상치'가 포함된 직선은 최대한 걸러준다는 점에서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 ②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A 기법'이라는 핵심 개념의 정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의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뒷내용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기법'이라는 같은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결국 다 같은 말만 할 것이니까요. 이렇게 핵심적인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써서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76%	8%	8%

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문자일 때 결측치를 대체하게끔 하지.
해설	일단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의미하기에, 데이터가 수치가 아닌 문자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나아가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고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결측치'를 '대체'하는 값으로는 '최빈값'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맞는 선지네요. '최빈값'이라는 핵심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직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지.
해설	데이터의 특징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 있는 직선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A 기법'과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확인한 내용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연봉 많은 선수는 이상치였지.
해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라는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에 대해 묻고 있네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고 해도,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상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여도 중앙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해설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즉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인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지문에서 '중앙값'은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는 값으로 제시된 것이었죠?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측정 오류가 있어도 다른 값이랑 비슷하면 이상치가 아니지.
해설	'이상치'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상치'는 측정 오류가 있는 경우의 값이 아니라,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이상'한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그 값이 다른 값과 비슷하면 '이상'하지 않으니 '이상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7%	6%	10%	12%	15%

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 미리 답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면 '이상치' 쪽으로 치우친 값이 나와 그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이상치'와 무관하게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그 값이 해당 데이터를 더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찾아봅시다.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의 대푯값으로 삼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상치를 왜 제외해.
해설	'중앙값'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도 제외하지 않고 나열한 뒤 골라야 합니다. 틀린 말이면서, ㉠과도 무관한 내용이네요.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평균을 왜 구하기 어려워.
해설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진다는 건 딱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평균'을 구하기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상치'가 많아진다고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나아가, 이 선지의 내용 역시 ㉠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선지를 보고 나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잊은 채 이런 선지에 낚이기 쉬워요.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대체 왜 복잡해?
해설	'이상치'가 있든 없든, '평균'을 구하는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로 '대푯값'을 '중앙값'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핵심은 데이터에 포함된 값을 찾는 게 아니지.
해설	일단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그 '이상치'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 2, 3, 10'이라는 데이터 집합에서 '평균'은 해당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4가 되니까요. 반면 '중앙값'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앙값'이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 핵심은 '평균'이 데이터 집합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것이지, 해당 '대푯값'이 데이터에 포함된 값인지 아닌지가 아니니까요. ㉠을 읽고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정답을 주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선지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3%	15%	36%	28%

10. ㉡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직선 L을 찾는 상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A 기법' 외에도, 'B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B 기법'부터 이해해야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 'B 기법'입니다. 'A 기법'에서는 임의의 두 점을 골라 그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이용했는데, 'B 기법'은 애초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직선들을 가정한 다음,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한 뒤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합니다. 'A 기법'은 임의의 점들을 잇는 직선과 다른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B 기법'은 임의의 직선과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턱값' 개념을 통해 '이상치'를 걸러낼 수 있는 'A 기법'과 달리, 'B 기법'에서는 '이상치'를 포함한 직선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B 기법'을 위해 임의로 가정한 여러 직선들 중 최적의 직선이 없는 경우, '이상치'를 포함한 직선이거나 '이상치'에 가까울 정도로 애매한 정상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도 하나의 지문처럼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B 기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지.
해설	'A 기법'의 경우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고, 'B 기법'의 경우 그냥 임의의 직선을 가정합니다. 두 기법 모두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죠?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 기법도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건 아니지.

해설	‘A 기법’의 경우 ‘이상치’를 포함한 모든 점들 중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가정합니다. 애초에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 ‘B 기법’ 역시 임의의 직선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죠? 두 기법 모두 결국 ‘이상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선 L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상치’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③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 기법에서 선택한 것도 웬만하면 안 지나지.
해설	‘A 기법’은 ‘문턱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 직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반드시 ‘이상치’를 지난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애초에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이상치’를 배제하는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 ‘이상치’를 지나는 직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④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5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턱값은 이상치랑 상관 있는 개념이 아닌데?
해설	‘A 기법’은 어떤 후보 직선과 나머지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을 때 해당 후보 직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문턱값’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와 관련된 것이지, ‘이상치’의 개수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문턱값’을 이용한 ‘A 기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라고 할 수 있네요. 한편, ‘B 기법’에서도 다른 점들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후보 직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이상치’를 포함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애매하지만 ‘A 기법’ 부분이 확실하게 틀렸으니 지워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상치도 정상치 집합에 들어갈 수 있겠다. B 기법 부분은 당연한 말이고.
해설	‘A 기법’의 경우, 후보 직선과 다른 점들과의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해당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합니다. 만약 후보 직선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이상치’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게 측정되어 그 다른 ‘이상치’가 정상치 집합에 추가될 수 있겠죠? 혹은 허용 범위가 넓게 설정된 상황에서 애매한 ‘이상치’와의 거리를 측정하면, 그 ‘이상치’가 정상치 집합에 추가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 기법’이 후보 직선을 가정하고 정상치 집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 ‘B 기법’에서는 임의의 직선을 후보 직선으로 가정합니다. 말 그대로 임의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 후보 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2%	5%	5%	4%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 : 형성(形成)하기
② ⓑ : 누락(漏落)되어
③ ⓒ : 도래(到來)한다
④ ⓓ : 투과(透過)하는
⑤ ⓔ : 소원(疏遠)하여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정의를 끊임없이 재진술하며 여러 원리들을 정확하게 납득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주세요.

생각의 전개 〈제재별 독해 – 인문〉

2024.11 [12~17] 인문 '노자의 도에 대한 해석' ☆☆☆☆

(가) 1문단

①『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②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② #화제 제시 #주장 제시

'한비자'라는 사람의 주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사람인데, 이러한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한 부국강병을 꾀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비자'라는 사람의 주장이자, 이 지문의 '화제의 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한비자'는 이러한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자'라는 책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엄격한 법치'와 관련되겠죠? '엄격한 법치'를 강조했다는 '한비자'의 주장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 2문단

①『**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②**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③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①~② #정의 제시 #주장 제시

'한비자'가 해석을 한 '노자'라는 책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비자'도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봤다고 해요. 이 지문 속에서 '도'라는 개념은 '근원 · 본질의 근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③ #재진술

이처럼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보았기 때문에, '한비자'는 3번 문장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도'라는 개념은 만물의 근거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아가 인간 사회의 일은 그 근거인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도'라는 개념을 정의한 뒤로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인문 지문의 핵심은 '결국, 다 같은 말'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한비자'가 '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문장이었습니다.

(가) 3문단

①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②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③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④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① #주장 제시

계속해서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노자'에는 '도'가 영구불변하는 항상성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는데, '한비자'는 이것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②~③ #재진술

그리고 '한비자'는 '도'가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1번 문장의 내용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만 하고 있죠?

이처럼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러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결국 '한비자'는 '도'라는 개념이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보면서, 이러한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재진술 #화제의 흐름

'한비자'는 이렇게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도'가 가변적이라는 내용이 재진술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건 기본이고, '통치술'을 보자마자 '엄격한 법치'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에서 인식한 '화제의 틀'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가 가변적이라는 것과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가 가변적이라는 앞의 주장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통치술'을 보자마자 화제의 흐름 속으로 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엄격한 법치'와 관련될 것이니까요.

(가) 4문단

①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②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③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① #주장 제시 #재진술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도 보았다고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다 같은 말만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한비자'는 '도'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도'가 곧 사물과 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별 법칙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도'라는 개념은 모든 개별 법칙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다 같은 말이죠?

② #주장 제시 #재진술

나아가, '한비자'에게 있어서 '도'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도'를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는 '한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하겠죠? 이처럼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으니,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통치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한비자'는 '도'에 근거한 입법을 통해 '엄격한 법치'를 세우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③ #비교/대조 #재진술

'노자'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비자'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욕망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네요.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니, 이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화제의 틀'을 고려하면, 이때의 법은 아주 엄격하겠죠? 이것이 결국 '한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새로운 정보처럼 등장했지만, 결국 '한비자'가 계속 하던 말의 재진술일 뿐입니다. 모든 인물은 같은 말만 한다는 대전제를 잊지 맙시다.

(나) 1문단

①**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②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① #주장 제시

이번엔 '유학자'들이 바라본 '도'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노자'와 '한비자'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의 내용을 끌고 와서 연결지으며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②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 제시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도가의 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때 '도가의 도'는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이때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이라는 정의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는, (가)에서 정의된 '노자의 도'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상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넘어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때 '노자의 도'의 정의가 '도가의 도'의 정의와 같다는 점, '도가의 도'에 주목하며 '노자'라는 책에 대한 주석을 전개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하면 '노자=도가'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를 통해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노자의 도=도가의 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이라는 말이 (가)에 제시된 '노자의 도'의 정의와 거의 같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가의 도=노자의 도'라는 도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며 정보량을 줄일 수 있어야 이런 지문을 빠르게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나) 2문단

①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②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③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④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⑤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⑥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⑦『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송나라 초기,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등장한 '유학자'이면서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했어요. 원래 '노자의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었는데, 여기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이고 '왕안석'은 이것이 '노자의 도'와 같다고 본 것이죠. 어찌되었든 '기'는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을 형성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겠죠? (나)에 제시되는 모든 인물들은 '도가의 도=노자의 도=현상 세계 너머

의 근원'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1문단에서 만들어준 일종의 '화제의 틀'이니까요.

④ #재진술

'왕안석'은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상 세계 역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 '왕안석'의 주장입니다. 이는 '도'가 가변성을 가진다는 '한비자'의 주장과도 비슷하죠?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최대한 같은 말들을 끌고 오며 연결시켜야 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왕안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인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비자'와의 공통점이죠? 계속해서 같은 말들이 보이면서 재미를 느끼시면 좋겠어요.

이때의 '개입'은,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 제정된 제도와 규범이라고 해도 현실 세계의 변화, 즉 현상 세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라는 핵심 개념과 엮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적용되는 제도와 규범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물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⑦ #주장 제시 #재진술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왕안석'은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즉 '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유학자'인 '왕안석'의 입장에서 당연한 말이기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제도와 규범의 변화가 '유학'을 베이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한 것이죠. 이때 '유학의 실천적 측면'이 바로 제도와 규범의 변화 등을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왕안석'은 결국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물의 근원인 '기'에 따라 현상 세계가 변하니, 그에 따라 '유학의 실천적 측면'을 살려 제도와 규범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을 뽑아낼 수 있어야 선지 판단이 쉬워져요.

하이라이트 문장

> ⑦『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앞에서 '왕안석'의 주장을 잘 쌓아 올렸다면, '유학의 실천적 측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인물은 하나의 주장만 한다는 대전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나) 3문단

> ①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②**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③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④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⑤『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⑥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①~④ #주장 제시 #재진술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자,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며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징'이라는 사람에게 도교는 그저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람들이 도교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겠죠? 이에 '오징'은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 즉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했네요. 이에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오징'의 모든 주장은 이 한마디로 모일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오징'은 '노자의 도'를 근원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는 '도' 혹은 '기'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 '한비자' 및 '왕안석'과는 다른 주장이죠? 나아가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이 '오징'의 주장입니다. '도'는 근원적인 것이라는 앞의 내용을 가져 오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징'은 '유학의 인의예지' 및 '사회 규범 · 사회 질서 체계' 역시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도 결국 천지 만물의 일부이니,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오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자의 도'가 '현실화'되어 '유학'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들이 만들어진 것이니, 주술적인 '도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해당하는 '유학'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갈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 ③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오징'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을 체크한 순간, 모든 주장이 이 한마디로 모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은 이 태도 하나만 강조하고 있어요.

(나) 4문단

> ①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혜**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②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④다양

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⑤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오징'이 활약하던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는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시기 활약한 유학자인 '설혜' 역시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 속에서 주장을 펼치겠죠? '설혜'는 이러한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당대 유행하던 사조처럼 '유학'과 '도가'를 분리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사실 '노자'의 '도교'와 '유학'은 다르지 않은데 이걸 다르게 보아서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징'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설혜'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도교'와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죠? 결국 '설혜' 역시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에 편승한 것입니다.

나아가, '설혜'는 '노자'에서 '유학'의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합니다. 이 역시 '도교'와 '유학'이 다르지 않다는 말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자'의 '도교'가 '유학'을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도'라는 개념과 관련된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해 '충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교'와 '유학'은 다르지 않다는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혜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혜'의 '학문적 소신'이 이 사조와 관련된 것임을 추론해놓고 모든 정보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지겹도록 한 인물은 하나의 주장만 한다는 태도를 요구하는 지문이었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	73%	10%	5%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회적 파급력이 어딨어.
해설	(가)에서는 '한비자'라는 책이 '한비자'라는 사람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를 '철학사적 의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라는 책과 '노자'라는 책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한 적은 없죠? 애초헤 화제와 너무 무관하기 때문에 답으로 고를 수가 없겠습니다.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계가 나오지는 않았지.
해설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 즉 가변적인 '도'를 기반으로 '엄격한 통치'를 위한 법을 만드는 사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비자'가 '노자'라는 책의 주장을 수용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한계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가)는 그저 '한비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여러 나라의 쇠퇴 과정에 따라 제시했지.
해설	(나)에서는 '도가의 도'라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라는 책에 대한 여러 유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송→원→명'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나타났었죠? (나)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한 것 같은 선지네요.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절충을 언제 했어.
해설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와 주장을 쭉 설명했을 뿐, 그들의 이견을 절충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애초에 '절충'이라는 표현이 정답 선

	지에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갑시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는 한 가지 시각만 나왔지.
해설	(가)는 철저하게 '한비자'의 입장만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나)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은 나왔지만,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딱히 '사례'라고 할 만한 내용을 인식한 적은 없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2%	11%	10%	22%	15%

13.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였는데?
해설	'한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에 따라 입법하여 '엄격한 법치'를 이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도'는 '시비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결국 '한비자'의 핵심 주장을 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FAQ

Q : 그런데 '한비자'는 어쨌든 '도'가 가변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틀린 선지가 아닌 것 같아요.

A : (가) 3문단에 따르면, '한비자'의 입장에서 '도'는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가) 4문단에 따르면, '한비자'는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도'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건의 '시비'(옳고 그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한비자'의 주장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가)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
해설	'한비자'는 '노자'의 주장과 달리,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도'에 근거한 '엄격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었죠?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비자가 이해한 도 그 자체네.
해설	'한비자'는 '도'가 영원히 존재하는 '항상성'을 가지면서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변적인 성질 덕분에 '도'는 여러 사물과 사건에 대한 개별 법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비자는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보았지.
해설	'한비자'는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 파악하면서,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비자'가 '도'의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납득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2번 문장, (가)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비자가 이해한 도 그 자체네.
해설	'한비자'는 '도'를 '만물의 근원'으로 봄과 동시에,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에 근거하여 '엄격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이었는데, 이 주장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26%	13%	46%	8%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유학자의 입장에서 오징은

유학자인 설혜는 자신의 ㉡ 학문적 소신에 따라

- ㉠과 ㉡은 각각 '오징'과 '설혜'의 주장 그 자체입니다. 먼저 '오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가의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 '유학'의 인의예지와 같은 천지 만물이니 '유학'을 따르자는 주장을 했어요. 나아가 '설혜'는 여러 사상이 합류하던 명나라의 사조에 편승하여 '도가'가 '유학'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기존에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던 '도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그대로 선지화된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될 것입니다.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6번 문장, (나) 4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자는 애초에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지.
해설	'노자'는 유학 덕목인 '인의예지'가 자신이 강조하는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유학 덕목의 등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유학자'인 '오징'은 '노자'의 이러한 견해를 부정했기 때문에, ㉠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설혜'는 '인의'와 같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을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하며 그 속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고 했죠? 이는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에 따른다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었기에, ㉡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1번 문장,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학에 주술성이 유입된 게 아니라 도교 자체가 주술성을 띠고 있는 것이었지.
해설	'오징'은 자신이 활약하던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를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도교'가 아닌 '유학'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며 '유학자의 입장'을 표출했죠? 주술성이 '유학'에 유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설혜'는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인 '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학문적 소신'을 보였습니다. ㉡ 부분은 적절하네요.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1번 문장,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설혜는 통합을 강조했지.
해설	'오징'이 활약하던 시기, '도교'라는 종교는 유학 및 불교를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습니다. '오징'은 이러한 '도교'는 그저 '주술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자의 입장'을 보였죠. 이번에는 ㉠ 부분이 적절하네요. 한편 '설혜'의 '학문적 소신'은 '도교'와 '유학'을 통합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전체,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징과 설혜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오징'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으면서, 결국 '유학'을 따라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인하는 '유학자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설혜'는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도교'라는 사상의 진의가 '유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며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표출했죠. 결국 '오징'과 '설혜'의 주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선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 선지가 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주장'을 묻고 있으니까요.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전체,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설혜는 유학의 사상적 우위에는 관심이 없지.
해설	'오징'은 '도교'라는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인 '노자'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유학자의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 부분은 적절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설혜'는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교'와 '유학'이 다르지 않다는 '학문적 소신'을 표출한 것이죠? 여러 학문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학문을 우위에 세우는 방식을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 ㉡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26%	13%	30%	19%

15.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ㄹ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 '왕안석'과 '오징'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왕안석'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물의 근원인 '기'에 따라 변하는 현상 세계에 맞춰, '유학의 실천적 측면'을 살려 제도와 규범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오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가의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 '유학'의 인의예지와 같은 천지 만물이니 '도교' 같은 주술적 종교가 아니라 '유학'을 따르자는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왕안석'은 '도=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고, '오징'은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ㄱ은 '도'가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왕안석'과 '오징' 모두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 이는 '오징'의 주장 그 자체죠? '도'가 '현실화'되면 사회 규범과 같은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왕안석'은 '도=기'가 작용하여 사물이 형성된다고 했을 뿐, '도=기'가 '현실화'되어야 인간 사회의 규범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ㄴ은 '오징'만 동의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 '도'가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고 합니다. '왕안석'과 '오징'은 모두 '도'가 현상 세계 속 만물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도'가 세상일과 관련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ㄷ은 '왕안석'과 '오징' 모두 동의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이는 우리가 미리 생각한 '왕안석'의 주장 그 자체입니다. 한편 '오징'은 '도'를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ㄹ은 '왕안석'만 동의하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1%	22%	23%	36%

16.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지문에 나온 인물들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왕부지'라는 새로운 인물의 주장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조금만 집중력을 더 발휘해서, '왕부지'의 주장도 정리해봅시다.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 '왕부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노자' 사상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결국 '왕부지'도 지문 속 인물들처럼 '노자' 사상을 비판했던 것이네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왕부지'는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나아가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는 '오징'처럼 '유학자의 입장'에서 '노자' 사상을 바라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지문에 제시된 것은 '유학'이었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즉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노자'와 주석자의 사상 모두가 왜곡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도대체 '왕부지'가 생각하는 '노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석자들까지 비판하는 모습이네요.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아가 '왕부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즉 인위적인 것을 제거하여도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는 '노자'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이는 '유학'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와 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왕안석'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왕부지'는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앨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유학' 규범이 아닌 '도'에 근거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한비자'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장을 소개하기보다는 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보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문에 제시된 정보와 엮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꽤 많은 선지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것처럼, '왕부지'와 '한비자'는 모두 '노자'가 인간의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2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것처럼, '왕부지'와 '왕안석'은 모두 '유학'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와 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기〉 정리를 잘하면 이렇게 빠른 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신의 이해에 따라 수정한 건 본래 뜻을 파악한 게 아니니까 잘못이라고 보겠다.
해설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주석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요. 어쨌든 '오징'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노자'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했는데, 이는 본래 뜻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왕부지'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하면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된다고 했지.
해설	'왕부지'는 주석자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 이를테면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징'은 철저하게 '유학자의 입장'에서 '노자'를 해석했고, 이에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했죠. 이는 '왕부지'의 입장에서는 '오징' 자신의 사상마저 왜곡시키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혜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설혜는 유학의 가치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도교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는데?
해설	'왕부지'가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설혜'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이 '도교'를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은 '도교'도 '유학'과 같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즉, '설혜'는 '유학'의 가치를 부각하기보다는 '도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결국 '설혜'라는 인물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4%	2%	92%	1%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④

①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②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③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④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⑤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모든 인물은 같은 말만 한다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물어본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인물의 수나 그 주장의 겉보기 정보량이 너무 많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다만 대부분의 선지들이 결국 그 인물의 핵심 주장을 묻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지문이기도 했죠? 어렵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으니, 확실하게 복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봅시다.

전개 〈고전소설 클리셰〉

2024.11 [18~21] 고전소설 '김원전' ☆☆☆

〈보기〉 확인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충군'이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주제로 삼고,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기이한 적대자와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영웅소설에 해당하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문 독해

황장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황상'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기이한 적대자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경태'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 '아귀'라는 적대자에게 맞서지만, '아귀'의 기이한 능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황상'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A]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다음으론 '한세충'이 나서보지만, 이번에도 '아귀'의 압도적인 무력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상'과 만조백관(여러 신하)을 모두 날려버린 뒤, '세 공주'만 등에 업고 돌아가는 '아귀'입니다. 정신을 차린 '황상'은 당연히 너무 놀라고 슬퍼 눈물만 흘릴 것이고, 이에 여러 신하들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는 심정을 보이고 있네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장수를 잃고 딸을 빼앗긴 '황상'의 심정과,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신하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이렇게 슬퍼하는 '황상'에게, '이우영'은 '김규'라는 인물에게 문의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당장 부르라는 것을 보니, '김규'라는 전 좌승상이 일을 굉장히 잘했나 보네요.

이때 '승상'은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상'이 전 좌'승상'이었던 '김규'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맥락상 호칭은 달라졌어도 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아귀'의 횡포를 모르는 '승상'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관'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고 슬퍼하며 상경하는 모습입니다.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이렇게 '황상'은 '승상'을 만나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 하고, '승상'은 자신의 자식이 '아귀'와 상대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자식을 불러 들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상 이 자식이 앞에 나온 '원'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제목부터 '김원전'이기 때문에, '김규'의 아들 '김원'이 적대자를 물리치는 영웅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우리의 예상 그대로네요. '김규'의 아들 '김원'이 '황상'을 만나 '원수'가 되고, '철마산'에 있는 '아귀'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나아가, 여기서부터

는 '김원'을 '원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겠죠? '김원'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아귀'를 물리치는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아무리 '김원'이 능력이 좋아도, 괴물같은 '아귀'를 바로 처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백계를 생각하던 '원수'(=김원)는 무언갈 갑자기 깨닫고, '공주'에게 '아귀'로 하여금 술을 많이 먹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나아가 이 계획을 함께 할 여러 여자들에게도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계획일까요?

>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 아귀가 말하기를,
>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이렇게 '원수'가 계책을 짜고 있을 때, '아귀'는 여자들을 불러놓고 조만간 '남두성'(맥락상 '원수=김원'을 의미하겠죠?)을 잡아 죽일 것이니 자신을 위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귀'의 머리에 '김원'의 칼에 당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면, '김원'의 능력과 '아귀'가 가지고 있을 '김원'에 대한 원한 등을 쉽게 공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를 들은 여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는 '원수'의 계책을 실행할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바로 미친 듯이 술을 먹여 '아귀'를 취하게 하고, 잠을 좀 자라고 하며 '거짓으로 위로'합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그 와중에 철두철미한 '아귀'는 '보검'을 들고 잠에 들려고 하지만, 실수로 누구 죽이면 어떡하냐는 '막내 공주'의 말을 듣고 '보검'을 내려놓네요. 아마 이 '보검'을 이용하는 것이 '김원'의 계책인 것 같네요.

>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 작자 미상, 「김원전」 –

이렇게 '아귀'가 잠들고 난 후, '공주'와 '원수'는 '협실'에서 만나 '후원'으로 갑니다. 이런 공간의 이동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해요. 계속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고 계시죠?

어쨌든 '공주'가 '후원'의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쳐 보라고 하자, 기둥은 반쯤 부러집니다. 힘이 장난이 아닌데, '공주'는 크게 놀라면서 만약 '원수'의 칼을 썼다면 일을 그르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아귀'의 비수, 즉 '보검'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것처럼 쉽게 베어지는 모습입니다. '원수'의 칼로 기둥을 반쯤 부러뜨린 것은 사실 칼이 강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네요. 이런 이유로 기둥을 풀 베듯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아귀'의 칼을 훔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칼을 가지고 '아귀'를 죽이든가 하겠죠?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물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물관계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겠죠? 인물들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물관계가 잡히게끔 해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3%	3%	5%	5%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A]는 '황상'과 신하들이 '아귀'의 무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아가 '황상'의 슬픔에 공감했던 기억도 있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으면 체크했겠지.
해설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으면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요. 혹시나 있었는데 못 찾은 것일까봐 겁난다고 해도, 일단 넘어가고 다른 선지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써야 하는 시간은 너무 많으니까요.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냐?
해설	[A]에서는 '황상'과 여러 신하들의 대화, 장수들과 '아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군신 관계, 적대 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 적어둔 것처럼, '황상'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당연히 '위계나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거가 어딨어.
해설	애초에 과거 장면이 나타난 적이 없죠? '아귀'에게 당하는 모습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회상이 어딨어.
해설	3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이네요. [A] 부분은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인물의 '회상'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나아가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타난 적도 없구요.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귀 같은 괴물 만나면 놀라고 슬퍼할 수도 있지. 무슨 과장?
해설	'황상'이라는 인물은 '아귀'라는 괴물에게 장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공주가 사라진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이는 충분히 각 상황에서 느낄 만한 반응이기 때문에, 딱히 '과장'되게 서술했다고 할 수도 없죠? 나아가 사건의 비극성 때문에 '황상'의 슬픔이 강조되기도 했으니, 이를 '완화'한다는 것도 허용하기 어렵겠구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1%	5%	12%	10%	12%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 ㉠은 [A]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아귀'가 '황상'과 그 신하들을 공격하고 '세 공주'를 잡아간 일이죠? 사실상 지문 내용에 대한 문제네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다며.
해설	'황상'은 ㉠을 겪으며, 여러 번 '전장'을 지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을 합니다. 이는 대처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네요. 애초에 대처 방안을 찾았다면 '아귀'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도 않았을 것이니 당연하게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 이우영이 아뢰길,
>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김규의 이름을 말했지.
해설	'황상'이 도대체 ㉠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조정'에 모인 신하들에게 묻자, '이우영'은 '김규'라는 지모 넉넉한 인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친절하게 굵은 글씨를 해준 부분으로 돌아가 독해하면 됩니다.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승상은 고향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지.
해설	'승상'은 '원'과 함께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는데, '황상'은 '승상'에게 ㉠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지문 내용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죠?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승상은 자식인 김원을 추천했지.
해설	선지 내용 그대로 허용할 수 있죠? '승상'은 자신의 아들인 '김원'이 '철마산'에서 '아귀'를 상대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귀가 잠들었음을 일러줬네.
해설	'김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린 뒤 '공주'에게 '아귀'가 술에 취하게 하라는 미션을 주었고, 그 미션을 수행한 '공주'와 '협실'에서 만나 '아귀'가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는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73%	7%	12%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숨겨 온 게 아니잖아.
해설	ⓐ는 '승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 주는 부분이고, ⓑ는 '승상'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한테 위세를 드러낸다고?
해설	ⓑ는 신하인 '승상'이 '황상'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세를 드러'낸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물론 ⓒ는 '아귀'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면서 '시녀'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려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서는 통한하다고 했고, ⓓ에서는 술 먹이려고 협조하는 척하는 거지.
해설	ⓐ에서 '황상'은 '승상'에게 자신의 '통한함'을 측량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에서 '여자들'은 '아귀'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비위를 맞춰 주는 것이죠? ⓐ와 ⓓ 부분에서 '황상' 및 '여자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읽었는지 묻는 문제였네요.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아귀 걱정하는 부분 아닌데?
해설	ⓑ는 '승상'이 자신의 아들인 '김원'을 불러 계책을 들어보라고 '황상'에게 요구하는 장면이니, ⓑ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 부분은 '아귀'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비위를 맞춰 주는 부분일 뿐, '아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는 아귀를 위하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니라니까!
해설	ⓒ의 경우, '여자들'에게 '남두성'을 죽이려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위로하라는 '아귀'의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 '아귀'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 비위를 맞추는 부분일 뿐, '아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애초에 ⓓ는 지금 당장 시킨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행동을 정한다는 의미의 '약속'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7%	8%	11%	68%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르네.
해설	'서경태'는 무력으로 '아귀'에 맞서고, '원수'는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합니다. 이는 '아귀'라는,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황상을 위해 나서고 황상의 슬픔에 공감하니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해설	'한세충'은 '서경태'가 당한 뒤 '아귀'를 잡아 한을 씻을 사람이 누구냐는 '황상'의 말을 듣고 나섭니다. 또한 '승상'은 '황상'의 슬픔이 담긴 조서를 보고 슬퍼하며 상경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모두 '황상'을 위해 움직이는 신하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귀가 김원에게 원한이 있으니, 언젠가는 대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해설	'김원'과 '아귀'는 '철마산'에서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귀'는 '김원'의 칼에 맞아 머리에 상처가 난 것 같은데, 이러한 원한 관계와 <보기>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들이 결국 대결하게 될 운명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공주'는 '황상'의 입장에서는 '아귀의 공격'이라는 불행으로 잃은 대상입니다. 이는 '공주'가 곧 피해자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공주'는 '원수'에게는 '아귀'를 잠들게 하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 조력자입니다. 여기서는 '공주'가 사건의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가 아니라 공주의 계획대로 한 거지.
해설	'김원'이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것은 '아귀'의 비수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원'이 아닌 '공주'의 제안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주인공인 '김원'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나아가 <보기>에 따르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공인 '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는 '초월적 능력'은 '아귀'의 것이라는 점에서 <보기>를 참고한 감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여러모로 답이 되기 어렵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③ 영웅소설 클리셰 : 모든 영웅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클리셰를 알고 있다면 지문 독해가 수월해질 거예요.

지문 내용 총정리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내용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김원전'은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된 작품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최근 시험에서는 과거 기출문제에 출제된 작품을 다시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니, 문학 기출문제 학습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합시다.

전개 〈실전 문제풀이〉
2024.11 [22~27] 현대시+수필 '문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잊음을 논함' ☆☆☆☆☆

〈보기〉 확인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가)의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보기〉입니다. '순환하는 자연'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 의식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자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고,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나)와 (다)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명시적인 주제 의식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발견한 '의미'나 '깨달음'이 곧 주제일 것이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단청'이 빛을 잃고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모습은 인간의 역사가 쇠락하는 데에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단청'은 이렇게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의 도움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푸른 싹'이나 '꽃이 피는 나무' 등이 자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어려웠지만, 〈보기〉에 맞춰 읽어내면 주제 의식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죠? 더 자세한 건 선지 판단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가지'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주체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양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것은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담을 넘는다는 행위를 도운 존재들이 많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지에게 담은 '도반'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도반'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잊'이라는 글자가 반복되어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지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글쓴이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찾는 것이라는 점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보기>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계속 강조했지만, 최근 수필의 난이도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서 지문처럼 정독하면서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글쓴이는 '이홍'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하니 '이홍'은 자신이 무언가를 잊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홍'에게 잊는 것은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즉 병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조금 헷갈리니, 정리를 해볼까요? 글쓴이는 '이홍'에게 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글쓴이는 이 말의 근거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잊어도 좋을 것'을 굳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고 합니다. 이는 글쓴이의 생각과는 다른 말이에요. 글쓴이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고 했으니까요. 즉,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한 번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의 상황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 잊지 못하는 것이 병이 아니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옳을까?'라는 표현을 보니, 글쓴이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에, 그것을 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일 것이니, 이를 확실하게 잡아 놓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글쓴이는 '천하의 걱정거리'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의 내용들은 모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모습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성을 잡고 어느 정도 주제가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해요.

>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이번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문단에 걸쳐서, 글쓴이는 '잊어도 좋은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잘못인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것도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가까운 것', '옛것', '가릴 줄', '본받을 것', '내적인 것' 등이 모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 것', '새것', '외적인 것'은 모두 '잊어도 좋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죄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이렇게 '잊음'에 대해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남들', '귀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잊음'에 대해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외적인 것)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내적인 것)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복잡한 초반부 내용을 잘 정리하여 글쓴이의 내면세계라는 주제를 인식했다면, 중후반부 내용은 모두 글쓴이의 내면세계와 '같은 말'만 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필의 핵심은 결국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혹은 깨달음을 인식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0%	6%	29%	2%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시적 청자가 없는데?
해설	(가)는 화자가 바라본 외부 대상을 묘사하고 있을 뿐,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너무 미시적인 내용이니 답으로 볼 이유가 없죠?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름 거시적인 것들이네. (가)에는 푸른이 반복되었고, (나)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 많네.
해설	'색채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는 감각적 · 운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인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시적'인 내용입니다. 답의 후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되겠죠? (가)를 보면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는 '~가 아니었으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했을 것이다'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안타까움은 주제가 아니지.
해설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라는 내면세계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진 (가)와 '가지'로부터 함께 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주제를 가진 (나)의 내용과 굉장히 먼 내용이니 허용하기 어렵겠네요.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에서 관망한다기에는 너무 오지랖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설	(나)의 화자가 '가지'라는 사물을 관조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함께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내면세계를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의 글쓴이가 세태를 '관망'한다는 건 절대로 허용하기 어렵죠? (다)의 글쓴이는 '잊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상과 소통하는 건 (다)밖에 없지.
해설	일단 (가)와 (나)는 특정 대상과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정말 억지로나마 허용을 해보면, (가)에서는 '단청'이 빛을 잃어가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나)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어야 한다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나름대로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두 작품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한편 (다)의 경우, 글쓴이가 '이홍'이라는 대상과 소통하고 있으며, '잊음'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 ·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지만, '대상과 소통' 부분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와 (나)의 주제에 딱 들어맞지 않는 내용임을 바탕으로 지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8%	11%	16%	9%	6%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흰 벽에는 ——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이 인간한테 영향 주는 거라며.
해설	일단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정밀'로 표현하면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모습이 지속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따르면 이 지문은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지속된 '정밀'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흰 벽'은 인간들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와 지문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때의 '흰 벽'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엿보는 '문'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흰 벽'에 그저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을 뿐, '흰 벽'이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흰 벽'이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된 것을 직접 탐색한 게 아니라, '어련히'(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결정적으로, <보기>에서 제시한 이 지문의 주제는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죠? 실전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바로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제'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선지는 답이 될 수 없으니까요.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용했으니까 서럽지 않은 것이겠지.
해설	'두리기둥'에 틈이 생겨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은, <보기>를 고려할 때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렇게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가는 것이 서럽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쇠락을 낳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근거들을 모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이는 것은, <보기>를 고려할 때 인간의 역사가 쇠락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쇠락하는 것은 자연의 영향이지만, 이것을 탐색하거나 수용하여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선지이기에,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주춧돌 놓인 자리'에는 '푸른 싹'과 '나무'가 자랍니다. 이는 쇠락의 상황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역사가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주제 그 자체이므로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가진 '문'이 오래 닫혀 있다가 별들이 돌아오고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모습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열고 닫는다)과 작품의 주제를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2%	48%	19%	15%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런 게 없었다면 가지 혼자서 한없이 떨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지.
해설	화자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뿌리와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가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가 '한없이' 떨기만 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어떤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지'가 혼자서 '한없이' 떠는 것은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뿌리와 '손을 터는' 꽃과 잎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맥락을 제대로 독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어요.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랑 폭설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
해설	화자는 [B]에서 '고집 센' 비와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담'이 아니었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담'이 아닌 비와 폭설은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없었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와 폭설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선지의 내용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마디로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잖아? 주제네.
해설	맥락상,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입니다. 그리고 '신명 나는 일'은 '가지'가 '담'을 넘는 일이에요. 이를 근거로 하면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죠. 모두 '담'을 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아가 '정수리를 타 넘'는 것 역시 '담'을 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주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담 밖을 가두는 건 가지가 아닌데?
해설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가지 혼자만의 일이 아닌 다른 여러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C]에서 무명에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는데, '가지'가 [B]에서 '담 밖'을 가둔다구요? '담 밖'을 가둬두는 것은 '저 금단의 담'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독해력이에요!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목련이랑 감나무가 서로 협력하는 건 아닌데?
해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돕는 대상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는 수양 '가지'처럼 담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을 의미할 뿐, 이들이 서로 돕거나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목련'과 '감나무'의 의미를 정확히 독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선지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6%	64%	17%	10%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 물음 던진 뒤에 자기 생각 전개하고 있네.
해설	(다)의 글쓴이는 ⓐ의 물음을 던진 다음, '잊는 것'이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 ⓐ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자체가 자기 생각이니까 허용되겠다.
해설	ⓑ는 앞에서 이야기한 글쓴이의 생각에 해당합니다. 이때 '무슨 근거로 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 ⓑ는 글쓴이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 가정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해설	(다)의 글쓴이의 주장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 앞의 가정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는 이러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기는 했지만, 결국 평가원이 묻고자 한 것은 (다)의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즉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였네요.

④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에서는 '먼 것'과 '새것'은 잊지 못하는 것으로, '가까운 것'과 '옛것'은 잊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잊음'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주제)을 드러내고 있네요.

⑤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저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지.
해설	글쓴이는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하늘', '남들', '귀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는 글쓴이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76%	7%	7%	2%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 ㉠은 닫혀진 채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였고, ㉡은 여러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 존재였습니다. 모두 각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대상들이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지.
해설	일단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만히 닫혀진 채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열리는 것(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간 것은 아니었죠? 나아가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면 ㉡이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허용하기 어렵죠.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은 가만히 있을 거고, 가지는 담을 넘네.
해설	㉠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닫혀 있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은 '담'을 넘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존재죠?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하면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이용하지.
해설	일단 ㉠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을 허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끼'가 껴 있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을 보면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나아가 ㉡은 외부의 간섭(도움)을 잔뜩 받아 '담'을 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헛소리야.
해설	㉠은 닫혀진 상태 그대로라는 점에서, '외면의 변화'를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내면의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감추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죠? ㉡의 경우에도, 그냥 '담'을 넘을 뿐 '외면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이 '내면의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감추려 한다는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해석이죠?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얘들이 뭘 잘못했냐.
해설	㉠과 ㉡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허용할 근거가 도저히 없으니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8%	12%	31%	37%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뿌리, 꽃, 잎이 혼연일체라고 했네.
해설	(나)의 화자는 '수양'을 '뿌리', '꽃', '잎'이라는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이들이 모두 '혼연일체' 가지를 믿어주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양'이 사실은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성심, 의로움, 예의 같은 거 나왔지.
해설	(다)의 글쓴이는 '잊음'에 대해 사유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잊으면 안 되는)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문단의 내용들이 이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수필의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정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지.
해설	(다)의 글쓴이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해당하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 무명에 획을 긋는
>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담쟁이 줄기도 담 넘을 수 있는 존재로 나온 것이고,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된다고 했네.
해설	(나)의 화자는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 등도 모두 '수양 가지'처럼 담을 넘는 '도박이자 도반'을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다)의 글쓴이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내적인 것'(=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없게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여기에 '매몰된다'는 해석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차분하게 선지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독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 무명에 획을 긋는
>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 아 짜증나네. 이건 잊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예의나 분수는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대응이 안 되네.
해설	일단 (나)의 화자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는 것과 다름없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죠? 한편 (다)의 글쓴이는 '예의'나 '분수'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은 '잊지 않는 문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병이 아니면 좋은 거고, 그것이 또 아니면 나쁜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의 글쓴이는 지금 잊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잊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치사하게 이중 부정을 써서 헷갈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묻고자 하는 것은 '독해력'이었어요. '예의'와 '분수'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된 개념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선지에서 묻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필 지문을 통해 '독해력'을 물어보는 경향은 계속 강화될 것이니,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현대시 독해 연습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화자는 '흰 벽'을 보고 있습니다. '흰 벽'에는 해가 들 때마다 알아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졌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화자는 이러한 풍경을 '정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밀'은 무려 천년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즉, '흰 벽'에 해가 들 때마다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지는 것은 천년이나 반복될 만큼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이렇게 천년이 흐를 동안, '단청'(목조건물의 무늬장식)은 매년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에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고 해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이렇게 낡아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나 '단청'이나 '두리기둥'은 험상궂어 가는 것, 즉 낡아가는 것이 그리 서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쓰임을 다해가는 걸 느끼면 서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왜 서럽지 않은 것일까요?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동시에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낡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문'은 상기(아직도)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낡아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던 '단청', '두리기둥' 등의 모습과 엮어서 생각하면, '문'이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역시 낡아가는 것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이 대상들은 모두 낡아가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요.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그런데 '주춧돌 놓인 자리'를 보니,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과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비록 '가을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제대로 된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그렇게 아득히 흘러갔던 별들이 돌아오고, 비바람이 걷혀 낡은 처마 끝에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 된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자, '오래 닫혀진 문'이 산천을 울리면서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바람 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낡아감을 감내하던 '문'이 어떤 결실을 맺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이렇게 '문'이 열리는 순간은,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즉 눈앞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문'이 열린 뒤 '그립던 깃발'을 흔드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나 보네요. 여기서 느끼는 감격을 '푸른 하늘'이라는 청명한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식으로 읽어낼 수 있겠죠?

(나)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화자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순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수양'은 버드나무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가지'가 있으니 나무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화자는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땅속에 있어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뿌리', 잠시 살을 붙였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꽃'과 '잎'들이 '혼연일체 믿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양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도움이 없었다면, '가지' 혼자서는 담을 넘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없이 떨기만 했겠죠. 즉, 제대로 자랄 수 없었겠죠.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엔 '비'와 '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비는 좋겠지만,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는 나무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도리 없는 폭설' 역시 그러하겠죠. 하지만 화자는 이들이 없었으면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때 '비'와 '폭설'은 '뿌리, 꽃, 잎'처럼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수양 가지'로 하여금 담을 넘는 것이 '신명 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즉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련이라는 의미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너무 쉽게 이뤄내는 것보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뤄낼 때 그 성취가 더 값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집 센', '도리 없는', '신명 나는 일' 등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선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와 '폭설'이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수양 가지'에게 담을 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한 것은 '담'이라는 장애물 그 자체입니다. 이 장애물이 없었다면, 애초에 '수양 가지'는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뿌리, 꽃, 잎'들의 도움을 받고, '비, 폭설' 등의 시련을 견뎌 내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수양 가지' 외에도, 다른 모든 가지 및 줄기, 나아가 우리 인간까지도 담을 넘을 때 그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무명'에서 담을 넘었다는 하나의 성취를 이뤄내며 '획을 긋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가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도박'이고, 우리의 성취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도반'인 것이죠. 화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 의식이 명확한 작품이었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③ 수필 독해 : 운문문학과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필이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해, 독서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며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지문이 출제되어 실전에서 꽤 고통스러웠을 세트입니다. 하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 '주제' 중심으로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학이 어려워지면, 기존에 묻던 포인트를 강화해서 물어볼 뿐입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늘 하던 대로, 더 깊게, 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합시다.

전개 〈실전 문제풀이〉

2024.11 [28~31] 현대소설 '골목 안' ☆☆☆☆☆

〈보기〉 확인

〈보기〉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으니 문제를 풀 때 다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부터 바로 읽어봅시다.

지문 독해

>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
>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
>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갑득이 어미'가 '정이'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때 '불단집'에서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오고 있어요. 이를 본 '갑득이 어미'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즉 말싸움에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모녀'라는 표현을 보면 '갑순이 할머니'가 '정이'의 어머니일 텐데, 당연히 '정이'의 편을 들 것이니 '갑득이 어미'는 여차하면 두 명과 말싸움을 해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인 '정이'의 역성을 듣기보다는, '정이'가 말을 잘못한 것이니 그냥 어서 집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갑득이 어미'에게 '귀에 솔깃'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이'가 잘못한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정이'가 시초를 낸 것이니 '정이'의 잘못이라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
>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
>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이처럼 '갑득이 어미'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했지만, 사실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갑순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뒤 '정이'에게 '배지 못헌 행랑것'이랑 왜 싸우냐며 나무라는 모습이에요. 이제 보니, '갑순이 할머니'는 정말로 '정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배지(배우지) 못한 행랑것'이라고 생각하는 '갑득이 어미'와 말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단집'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갑순이 할머니'의 가족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일 거예요. 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갑득이 어미'네와 엮이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것이죠. 좀 어이없기는 하지만, 최대한 '갑순이 할머니'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
>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
> 쩻, 쩻, 쩻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
>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쌈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을득이'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는데, (맥락상 '갑득이 어미'에게 보고한 것이겠죠? 이를 들은 '갑득이 어미'는 많이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주름 영감'이 돌아온 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갑순이 할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분별도 있을 만한 '정이'가 왜 '그런 상것'하고 '욕지거리'를 했냐며 혀를 차는 모습이에요. 이를 듣고 있는 '늙은 마누라'는 당연히 '갑순이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마누라'라는 표현을 보니, '집주름 영감'은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인물관계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부부 관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원은 인물에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크될 수밖에 없는 인물관계 이상으로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자신의 말에 동조를 해 주니 '갑순이 할머니'는 당연히 신나서 더 거들겠죠. 그러면서 대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한숨'을 쉬는 그 마음에 확실하게 공감하셔야 합니다. 분별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이 '갑득이 어미'같은 사람과 싸웠다는 게 정말 속상한 것이죠.

>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불단집'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기에, 그 소유의 '뒷간'(화장실)을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양 서방'이 갇힌 모습입니다. '양 서방'은 누구이고, 도대체 왜 갇힌 것일까요?

>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
>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
> "아, 누가 문을 잠겄어어어?"
>
>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
>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은 도무지 나갈 방법이 없자 은근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늙은이'('불단집'의 뒷간이니까 '집주름 영감'이거나 '갑순이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가 뒷간 문을 잠군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이 뒷간이 '불단집' 소유라고 했는데, '양 서방'은 '제 집 뒷간도 아니구 남의 집 것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보면 이 뒷간을 '불단집'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소리라도 질러 볼까 하는데, 괜히 자기가 수상한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에 문 좀 열라는 말만 중얼대며 문을 흔드는 '양 서방'의 모습입니다. '양 서방'의 소심한 성격이 느껴지면 좋겠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 을득이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히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
> [A]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숙에다 글쎄 가둬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
>
>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
> [B]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쇨 챘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
> 발명을 하였으나,
>
> [C]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쇨 챌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이번에도 '을득이'는 '갑득이 어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일단 '양 서방'은 '을득이'의 아버지이고, '갑득이, 을득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갑득이 어미'는 '을득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잡혔을 인물관계입니다.

아무튼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품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에 일부러 자신의 남편을 가둔 것이라고 단정하며, 곧바로 '갑순이 할머니'에게 따져 묻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순이 할머니'는 억울해하고 있어요.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지만, '갑순이 할머니'는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갑득이 어미'는 다 알고서 한 것이면서 발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이들의 갈등은 끝나질 않네요.

>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
>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
>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
>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
> "자물쇨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
>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
>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
> "뭐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 – 박태원, 「골목 안」 –

이렇게 '갑득이 어미'는 잘 걸렸다 싶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의 편을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개적인 싸움에서 여론전에서 밀리면 승산이 없죠? 눈치를 보던 '양 서방'마저 머뭇거리다가 자기 잘못이라며 겸연쩍은 태도를 보입니다. '갑득이 어미' 입장에서는 남(의)편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더는 '집주름집 마누라'(=갑순이 할머니)를 공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에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양 서방' 역시 잠깐 갇혀 있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 서방'이 뒷간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순이 할머니'와의 갈등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애를 쓰는 '갑득이 어미'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설에서 요구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7%	36%	12%	8%	7%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을득이가 보고했다고 했지.
해설	'불단집' 안에서 '정이', '갑순이 할머니', '집주름 영감' 등이 대화한 내용이 '을득이'라는 인물에 의해 '갑득이 어미'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배지 못한 행랑것'과 다투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단집' 가족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불단집' 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읽고, '을득이'가 그것을 전달한 뒤 '갑득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지 등에도 공감했다면 당연하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인물에게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소설 독해의 핵심입니다.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툼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지.
해설	이 지문에는 '정이'와 '갑득이 어미'의 다툼,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와의 다툼이 제시되었습니

	다. 전자의 경우 그 다툼의 원인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정이'가 말실수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건 '갑순이 할머니'가 빨리 '정이'를 싸움에서 빼내기 위해 그냥 한 말입니다. '정이'는 '갑득이 어미'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구요.) 후자의 경우 '갑순이 할머니'가 '양 서방'을 뒷간에 일부러 가뒀다고 생각하는 '갑득이 어미'의 마음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다툼의 원인이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려운 선지네요.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
해설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가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냉담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네요.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견뎌 내려는 결연함이 언제 나왔냐.
해설	'불단집' 가족들은 '갑득이 어미'를 무시하는 차별적 언행을 하지만, '갑득이 어미'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은 이러한 차별적 언행을 '견뎌 내려는 결연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했겠죠.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앙금은 계속 남아 있잖아.
해설	'을득이'는 뒷간에 갇혀 곤경에 빠진 아버지, 즉 '양 서방'의 상황을 '갑득이 어미'라는 다른 가족에게 전합니다. 이에 '갑득이 어미'는 화가 나서 '갑순이 할머니'를 쏘아붙이지만, 이웃 사람들 및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공박을 단념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아직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간의 앙금이 씻기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3%	7%	82%	4%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양 서방'을 뒷간에 가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헌단 말예요?', '~옳단 말예요?'와 같이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억울하다는 얘기였지.
해설	[B]는 '갑순이 할머니'가 억울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한 것도 맞으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듣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네.
해설	[C]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가 듣고도 모른 척한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모르고 그랬다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갑순이 할머니'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했잖아.
해설	[A]에서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의 뒷간에 가뒀다는 행위와 '양 서방'이 미워서 그랬다는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가 자신에게 비난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자신이

	'양 서방'을 뒷간에 가둔 것은 인정했지만, 그건 실수였다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상대의 비난을 파악했고, 그에 맞는 대응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A]~[C]의 상황을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는 선지죠? 이들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어야 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0%	15%	20%	26%	9%

30.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배지 못한 행랑것과 싸운 게 분별없다고 한 거지.
해설	'집주름 영감'은 '정이'가 '상것허구 욕지거리'를 한 것에 대해 분별없는 행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들은 '늙은 마누라', 즉 '갑순이 할머니'는 신나서 거드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갑순이 할머니'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정이'를 나무란 뒤 '집주름 영감'에게 밝힌 생각과 같겠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글쎄 정이가 이런 짓을 했대요.'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를 들은 '집주름 영감'도 이에 동의한 것일 테니까요. 결국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의 마음에 확실히 공감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늘 묻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해요.

FAQ

Q : '집주름 영감'은 '걔(정이)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집주름 영감'은 '정이'가 분별없다고 탓한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A :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것은 좋은 태도이지만, 그저 명시적인 근거만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소설의 핵심은 인물에게 '공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주름 영감'의 말은 '정이가 원래 분별없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런 분별없는 짓을 했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갑순이 할머니'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집주름 영감'이 '정이'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했다는 내용은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선지에서 묻는 것은 '집주름 영감'이 '정이'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했다는 것이지, '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분별없다고 탓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태도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집주름 영감이 갈등을 왜 숨겨.
해설	'집주름 영감'은 딸이 '갑득이 어미'와 다툰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을득이'가 이를 엿듣고 '갑득이 어미'에게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고, '집주름 영감'이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허용하기 힘들죠. 한편, '양 서방'은 '갑순이 할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는 아내, 즉 '갑득이 어미'의 편을 들지 않고 상황을 무마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충돌은 막았다는 점에서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죠? 따라서 '양 서방'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했다는 것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가 소리를 크게 못 낸 게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이면서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잖아.
해설	'양 서방'은 뒷간에 갇힌 뒤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소심한 성격 탓에 소리를 크게 지르지 못해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이웃 사람들이 '갑순이 할머니'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자, '양 서방'은 머뭇거리며 '갑득이 어미'에게 자기가 소리를 금방 내지 않아서 갇힌 것이라는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 서방'이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와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는 자신이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둘이 무관하다는 이 선지의 내용은 허용하기 어렵네요.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머뭇거리고 겸연쩍어 했잖아.
해설	'양 서방'은 아내인 '갑득이 어미'가 '갑순이 할머니'

	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머뭇거리며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겸연쩍게' 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명백하니, '무덤덤한 태도'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애초에 이 상황의 '양 서방'에게 공감하며 읽었다면, '무덤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냥 이웃 사람들 눈치 봐서 그런 거지.
해설	'양 서방'은 '갑순이 할머니'가 자물쇠를 채울 때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웃 사람들이 모두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자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말이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양 서방'은 '갑순이 할머니'가 문을 잠근 것을 알고 있기도 했구요. 결국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묻는 전형적인 선지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42%	21%	10%	19%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스터 방' 지문에서도 출제되었던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 개념'이 쓰였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것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를 하면 해당 인물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과 달리, 서술자의 시선와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인물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을 통해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① ㉠: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빨리 상황 무마하려고 한 거니까,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 떠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설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경우 '시간의 지연'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은 '갑순이 할머니'가 '정이'를 이 상황에서 빨리 빼내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빼내려고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 쉼표를 연이어 사용해야 할 정도의 '시간의 지연'이 생긴 것이죠.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게 아니지.
해설	근처 맥락을 고려하면,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갑득이 어미'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 서술자가 설명하는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 즉 내면세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죠? '을득이'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집주름 영감'과 늙은 마누라인 '갑순이 할머니'는 ㉡에 나타난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하는 대화를 했으니까요. 정확히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로 상대에게 대응했다가, 상황을 잘못 인지했음을 깨닫고 새롭게 추측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시선으로 초점화'와 같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여러 인물들의 심리에 공감했는지를 묻고 있네요. 물론, <보기>에 따르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을득이의 말을 전한 걸 수도 있고, 서술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
해설	㉢의 '~라 한다'의 주체는 그 말을 전하는 '을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서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은 서술자의 시선과 '을득이'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것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인물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서는 서술자가 인물들과의 거리를 두고서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해석이지만, '허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죠?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망설이는 부분 맞지.
해설	㉣은 뒷간에 갇힌 '양 서방'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볼까 하다가, 괜히 자기가 수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상황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죠?

⑤ ㉤: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 서방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이지.
해설	㉤에서는 '오오'라는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득이 어미'가 '양 서방'의 진술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기>와 인물의 심리를 적당히 잘 섞으면 어렵지 않게 허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소설 독해 :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지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문 내용 총정리

사투리를 심하게 사용하고 있어 대화의 양상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인물관계가 복잡해 실전에서 독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각 장면에서 인물에게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였죠? 인물관계가 복잡한 지문을 해결할 때, 인물관계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독해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물에게 '공감'하며 내용을 이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인물관계는 자연스럽게 체크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여러 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전개 〈실전 문제풀이〉

2024.11 [32~34]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 화암구곡'

☆☆☆

〈보기〉 확인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보기〉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바 있던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해요. 한편 (나)에 해당하는 '화암구곡'은 '강호에서의 자족감',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 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모두 화자의 '내면세계'와 관련된, 주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중략) 이전 부분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부분이죠? 기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기출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EBS 연계가 아닌 '기출 연계' 효과가 더 클 정도예요. 기출문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쨌든, (중략) 이전은 사행을 떠나는 배에서 고국을 돌아보며 느낀 정서와, 갑작스레 '대풍'이 일어나서 위태위태한 상황을 겪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략) 이후는 사행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더워 땀흘리는 것을 보고 왕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보인 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감상은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되겠죠?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섶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보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층석류'나 '고사매' 등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 '양류풍'을 느끼며 보이는 강호에서의 자족감, '야인 생애'라는 표현으로 보여 주는 향촌 생활에 대한 회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위주로 읽은 상태에서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51%	17%	8%	18%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실전적 지문 독해' 수준으로 지문을 가볍게 읽은 상태에서는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마지막에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해요. 물론 이 해설에서는 '실전적 지문 독해' 수준으로 지문을 가볍게 읽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회상하는 장면이 있나? 귀찮은데 넘어가자.
해설	일단 지문 속에서 '회상하는 표현'을 찾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니, 일단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는 과거가 너무 힘들었는데 현재는 편하다는 의미이지,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부 환경의 영향력? 파도치는 거 말하는 건가? 아이 부분에 형태가 변화한 모습 나오네.
해설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대풍'이 불어 배 위에서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보니, '만곡주'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쌍돛대'가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러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사물의 형태가 변화된 모습'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왜 애달파?
해설	(나)에서는 '양류풍'(버드나무에 부는 바람)과 같은 어휘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을 즐기며 느끼는 '자족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애달픈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애초에 지문을 읽으면서 '애달픔'이라는 내면세계를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굴 대비했냐.
해설	(나)에 나타나는 인물은 '초동'과 '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일하면서 웃고 있을 뿐, '대비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죠? 정확히는 이들이 '대비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허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구요.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외감은 파악한 적 없는 내면세계인데?
해설	(가)에서는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에서, (나)에서는 '너뿐인가 하노라'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화자를 만난 가족들의 반가움과 '층석류 · 고사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일 뿐,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은 아니었죠. 애초에 '경외감'이라는 내면세계를 파악한 적도 없구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5%	65%	14%	11%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국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빛 두어 점만 보이니 허용할 수 있겠다.
해설	[A]의 맥락을 그대로 독해하면 됩니다. 화자는 배를 탄 뒤 떠나온 곳인 고국을 돌아보는데, '야색'(밤의 경치)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화자는 '연해 각진포'에 있는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 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빛을 통해 자신이 지금 육지로부터 얼마나 떠나온 것인지 그 거리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육지의 '불빛 두어 점'이 보이면, 그 불빛과의 거리를 통해 떠나온 곳을 가늠할 수 있겠죠?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은이 망극하다!
해설	[B]는 왕의 말을 듣기 위해 '끓는 땅'에 엎드린 신하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고충을 헤아려 먼저 나가 쉬라는 임금의 배려와 그에 대해 '천은이 망극하다'며 감격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뻐했다며.
해설	[C]는 화자가 갑작스레 돌아오자 처자식들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A]와 [B]를 독해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죠?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서는 파도치는 모습이, [C]에서는 풍도의 험하던 일에 대한 소회가 드러나지.
해설	[A]에서는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C]에서는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이를 근거로 하면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는 해석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14%	32%	37%	14%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뭇잎 불리이듯 올랐다 떨어졌다 했네.
해설	2019학년도 수능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만곡주'가 '큰 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만곡주'가 '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화자는 대풍이 불자 '만곡주'가 마치 '나뭇잎'이 불리이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재니까 화자가 직접 기른 화훼 맞지.
해설	화자는 '층석류'와 '고사매'라는 분재들을 바라보면서, '너뿐'만이 '화암 풍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재'는 화분을 의미하기에, '층석류'와 '고사매'는 화자가 직접 기른 화훼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이러한 화훼로 조성한 공간만이 '화암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조성한 공간이 아름답다는 자긍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재'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몰랐다고 해도 <보기>에서 화자가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개성적 공간'을 구성했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고 있네.
해설	(가)의 화자는 사신단이 '육선'에 함께 타고 '해산을

	진동하'는 '군악' 소리를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고려하면, 이는 '경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나)의 화자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층석류'와 '고사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어요. <보기>를 고려하면, 이는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섶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랑할 때 있을 것이라는 건 좋다는 거잖아? 겸양의 태도는 주제랑 반대되네.
해설	(가)의 화자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 즉 '심란'한 내면세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한편, (나)의 화자가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은 '야인 생애'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겸손한 태도로 양보한다는 의미의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가 강호에서의 '자족감'이었기 때문에, '겸양의 태도'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해요.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손주 안고 만족스러워 보이고, 자족감은 (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지.
해설	(가)의 화자는 집으로 돌아와 손주를 안고 어르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강호의 산인', '성대의 일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만족스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양류풍'이 불자 '뜻대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가 강호 속에서 자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의 주제 그 자체였으니,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겁먹지 않고, 현대시를 읽듯이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가볍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석은 선지가 해줄 겁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를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고전시가 세트였습니다. 나아가 '일동장유가'처럼 기출문제에 출제된 작품이 다시 출제되는 최근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지문이기도 하죠?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 내용적인 일관성을 확인하시고, 많은 작품에 대한 경험치도 쌓으면서 문학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